

본당 사목방향

“ 작게, 낮게, 함께 ”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년
2월 8일

제1074호

연중 제5주일

지난주 미사참례 45명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

2월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
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
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김천황금성당 주임
김영수(시몬) 신부

말씀 KEY WORD

버리다

(아피에미 ἀφίημι)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버리다'로 번역된 '아피에미'는 '내버려두다', '떠나보내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떠나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아피에미'의 본디 의미입니다.

② 연중 제5주일

일상에서의 신적 체험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루카 5,4).”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미심쩍은 마음이었지만 순종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고기를 잡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 체험이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평범한 어부로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특별히 성별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일터, 즉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환경 속에서 신적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신적 체험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경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적 체험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재정립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는 신적 체험이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과 사명을 주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신적 체험은 거룩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당 337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6,1-2 7.3-8

우씨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3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4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5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뵈다니!”

6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8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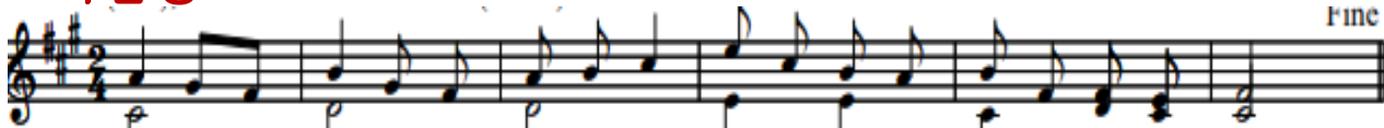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 -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 세상 임금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2독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5,1-11

1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3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4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5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7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9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11

1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 헌 208, 342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성 체 158, 160

파 견 345



💧 루르드 기적의 샘물 💧

주임 신부님께서 루르드 성지에서 기적의 샘물을 가져 오셨습니다.
 금주 성전 입구 성수대 아래에 별도로 비치해 둔 기적의 샘물로
 성호경을 긋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멘

성호를 그으실 때는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루르드 기적의 샘물은 성모님이 아홉 번째 루르드 발현 때 베르나데트에게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때 파낸 샘물이 아직도 메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루르드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찾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사하고 동시에 회개와 보속을 통한 내적치유를 만들어 낸다.

2025년 2월 사목평의회(197차)

일시 : 2월 13일(목)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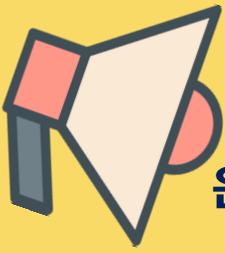
2월 구역 협의회

일시 및 장소 : 2월 15일(토) 미사 후, 사무실

돈보스코 신입 복사단 모집 (1/18~2/15)

- 대상 :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 신앙심이 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학생
- 신입복사 교육일정 : 3월1일 ~ 3월29일(5주)
매주 토요일 13:00 ~ 14:00
(석실성당 교리실)
- 신입복사 입단식 : 4월 5일 예정
- 입단 신청 문의 : 복사 지도교사 주인성 시몬

(186 2100 3357 / 위챗ID : jjslkhs)



❖ 교우업체 광고주 ~님 ❖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박성규 엘리ژی오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강창구 베네딕토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강범규빅토리노, 김응진 대건 안드레아, 유윤경 아델라, 장재연 대건 안드레아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들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웬성

■ 증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SBC 한국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동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동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Y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 설치전에 구버전 성당APP은 삭제 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신청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